

선거의 공명과 언론의 역할

이 해 두
중재위원 · 대구대 사회교육과 교수

I. 선거 : "민주주의의 축제"

현대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의 형식으로 실현된다면 선거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하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있는 곳엔 반드시 선거가 있기 마련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인 것이다. 그러나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선거가 선거답게 치러지면 국정을 운영하는 대표자들이 올바르게 선출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가 올바르게 치러지지 못하면 결국 국정은 난맥상을 보이게 된다. 썩은 흙으로 담장을 바를 수 없듯이 썩은 정치인으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선거가 선거답게 치러지려면 무엇보다도 공명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공명선거는 글자 그대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거풍토는 금권에 의한 타락, 부정선거였었다.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는 그 모두 공명선거를 부르짖지만 막상 선거를 치르고 나면 허탈감에 빠질 만큼 공명선거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엄청난 전환기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도 크나 큰 시련기에 봉착해 있다. 시대적으로 천 년의 장이 새로 넘겨지는 전환기에 있으며, 국가 사회적으로는 무한경쟁의 세계경제적 파고 속에서 연말에는 대선, 새해에는 지자체선거를 치러야 한다. 역대 수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다가오는 선거만큼 중차대한 선거는 없을 성 싶다. 선거를 공명하게 치러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절대 절명의 사명이 아닐 수 없다.

공명 선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지만 아울러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기능과 역할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물론 선관위에서 선거를 일반적으로 관리, 감독해 가겠지만 선관위의 활동만으로는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II. 언론 : "사회의 불침번"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거에 있어서 언론이 수행하는 역할은 실로 막중한 것이다. 언론의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이 어찌 선거에 있어서만 국한될 수 있을까 마는 특히 선거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은 다른 어느 경우보다 중요한 것이다. 언론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는 거의 부패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선거에 있어서 언론이 깨어 있을 때- 특히 현대사회에서 언론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위력을 생각할 때 부정, 타락선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은 사회의 불침번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언론은 사회의 등불이며 사회의 목탁이다.

일반적으로 언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은 ① 보도의 기능 ② 해설의 기능 ③ 비판과 감시의 기능 ④ 계도의 기능 ⑤ 오락의 기능을 들고 있다. 이 중에서 선거와 관련된 언론의 기능과 역할로는 마지막 오락의 기능을 제외한 네 가지 즉 보도, 해설, 비판 및 감시 그리고 계도의 기능이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제 기능을 공명선거 실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충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 같다.

Ⅲ. 보도의 기능 : "사회의 거울"

언론에 있어서 "보도의 기능"은 언론의 존재의의를 결정해 주는 핵심적 역할이 된다. 언론이 "사회의 거울" 이라면 언론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일들을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을 생명으로 한다. 그러므로 언론은 "정확한 보도"와 "신속한 보도"를 본분으로 삼고 있다. 선거에 있어서도 이러한 역할과 기능은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선거가 치러지는 전 과정에 걸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언론은 유권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알려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언론은 평소에도 그랬듯이 선거에 있어서 빚어지는 모든 사실들을 겉으로 나타나는 피상적인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내면에 묻혀 있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파헤쳐서 알려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선거라고 하면 으레 "부정"을 연상하리 만치 매년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그리고 음성적으로 치러져 왔던 것이다. 깨끗한 정치는 깨끗한 선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선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 공명선거를 해치는 선거의 부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세련화되어 보이지 않게 음성적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겉으로 보아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언론은 "드러난 부정" 보다 "드러나지 않는 부정"에 더 관심을 두고 파헤쳐야 할 것이다.

언론은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사회의 거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실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보도할 뿐만 아니라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상세히 밝혀주는 "볼록 거울"의 역할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해설의 기능 : "사회의 목탁"

언론은 있는 사실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의미와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른바 "해설의 기능"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론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의 의의와 의미, 민주주의와 선거·선거와 국가발전 등 정치과정에서부터 선거법과 선거방법, 투표와 선거관리 등 각종 제도에 이르기까지 선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설하여 유권자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다방면에 걸쳐 관련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이 "사회의 거울"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목탁"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면 선거가 부정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유권자를 일깨우는 목탁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선거는 권력의 속성이 그렇듯이 늘 부패하고 타락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막아주는 방부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언론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언론은 부정선거, 타락선거를 고발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상세하게 보도, 해설해 오면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 만약 지금껏 언론이 없었다면 한국의 정치풍토가 어떠했을 것인가를 상상해보면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매스 미디어의 발달과 보급에 따라 오늘의 민주정치가 "미디어 데모크라시" 또는 "텔레 데모크라시"의 양상을 띠어가고 있으며 이미 우리사회도 입후보자들의 다양한 TV 또는 신문지상의 토론이나 대담 등은 가히 선거혁명이라 할 만큼 종래의 선거풍토와 양상을 바꾸어 가고 있다.

V. 비판과 감시 : "빛과 소금"

언론에 있어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은 보도와 해설의 기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언론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언론의 이런 비판 및 감시의 기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의 비정상적 부분들이며, 언론의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들이다. 언론은 늘 사회의 비정상적이고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으며 비판의 화살을 아끼지 않는다. 언론이 제구실을 못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언론이 썩은 사회치고 썩지 않는 사회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선거의 경우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이다. 언론 없이 선거를 치른다고 가정을 해보면 공명선거는 고사하고 선거 자체부터 치를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설령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될 지라도 부정선거는 극에 달해 가히 "선거망국"의 형국을 보이게 될 지 모른다. 언론이 선거의 전 과정에 걸쳐 보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메스를 가하며,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의 눈을 늦추지 않을 때 선거는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상대정당의 선거본부에 일시 도청장치를 했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고서도 끝내 정상의 자리에서 사퇴까지 해야 했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이 같은 일은 언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 보도한 후 줄곧 그 사건의 배경을 추적 보도함으로써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한 언론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적어도 우리의 언론이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언론은 "제 4부"로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 마땅한 것이다.

선거와 관련된 언론의 비판과 감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기관마다 "부정선거 고발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각종 제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 추적 보도함으로써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캠페인은 각종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전개할 때 그 효율성도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I. 계도의 역할 : "정의의 종"

언론은 사회의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또 그 사실들에 대해 상세히 해설하며, 사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늘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늦추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민의 의식을 올바르게 계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언론의

생명이 "시시비비"의 정론에 있다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 자체만으로 벌써 계도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제시함으로써 어떤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별기준을 얻게 된다. 이 점에서 언론은 참자는 유권자의 의식을 깨우는 "정의의 종"인 것이다.

언론의 역할을 선거와 관련하여 살펴 볼 때 무엇이 공명선거이고 무엇이 부정선거인가를 밝힘으로써 시작된다. 이러한 역할은 언론의 해설적 기능과도 결합하여 더욱 증폭될 수 있을 것이다. 신문이나 라디오 TV 등에서 다루는 공명선거 캠페인은 바로 이러한 역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유권자들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이며, 입후보자는 또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는 한편 공명선거에 어긋나는 부정선거가 어떻게 빚어지는가를 사례를 들어 일일이 알려주고 유권자들이 스스로 부정선거를 적발, 고발할 수 있도록 계도해 가야 할 것이다.

선거의 부정과 타락은 후보자와 유권자가 합작으로 만들어 내는 작품인 것이다.

이러한 부정과 타락을 막는 방법은 후보자와 유권자가 다 함께 각성하는 길 뿐이다. 이러한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결국 언론으로 돌릴 수 밖에 없다. 언론의 계도적 기능은 공명선거를 위해서 실로 긴요한 것이다.

Ⅷ. 검증의 역할 : "리트머스"지

이상의 언론의 여러 기능과 관련하여 공명선거를 위해서 꼭 부기해야 할 언론의 기능으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지난 총선의 경우 일부 후보자 가운데는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심지어 전과기록을 가진 사람도 없지 않았다. 적어도 국정을 맡는 국민의 대표자가 될 사람이라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한 청렴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전문성이나 봉사성에 있어서는 남다른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력이나 경력에 위조된 부분이 없는지, 공직자라면 재직 중 비위, 비리사실은 없는지, 그리고 재산의 축적과정에서 탈세, 탈법행위, 투기혐의는 없는지, 아울러 행정능력이나 관리능력 그리고 경영능력 및 국가를 이끌어 갈 비전은 있는지 등등…… 이와 같은 모든 조건들은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론일 것이다.

언론은 부정을 검증하는 "리트머스"지인 것이다. 아울러 언론은 여론을 형성시키고 집결시키는 광장이다. 수많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인격과 비전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언론은 유권자의 "여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신문의 지상토론이나 TV, 라디오 등의 공개토론이나 대담 등을 자주 열어 적격자를 공개적으로 공명하게 걸러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여론과 토론의 장"으로서 언론의 이같은 역할은 폭넓게 실시되고 있다. 우리의 언론도 혼탁한 정치풍토를 걸러주고, 자격 없는 정치인들을 배제시키는 여과장치의 역할을 수행해 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언론의 여러 가지 역할이 적극적으로 수행될 때 선거의 풍토는 점진적으로 정화되어 갈 수 있으며, 따라서 선거의 공명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